파강(巴江) 김두남(金斗南)과 『양금신보』

최 선 아

목 차

Ⅰ. 서론
Ⅱ. 김두남의 생애와 교유
Ⅲ. 『양금신보』 간행 경위
Ⅳ. 거문고보를 통한 소통
Ⅴ. 전사(傳寫) 과정 중 감추어진 발행인
Ⅵ. 결론

Ⅰ. 서론

조선 시대 민간의 거문고보 간행은 이미 유통되고 있는 유명 음악인의 악보를 구입하거나 장악원 악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합자보나 육보 등의 기보법을 이용하여 악곡을 싣고, 거문고 관련 이론적인 내용을 거문고보의 서문이나 발문에 수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두·세 개의 거문고보의 내용을 일정한 순서로 섞어서 편집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거문고보는 한 사람만의 창작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본고에서는 『양금신보』(梁琴新譜)를 간행한 파강(巴江) 김두남(金斗南, 1559~1647)을 통해서 목판본 『양금신보』의 편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두남은 임진왜란 전·후 음악의 변화를 알게 해주는 『양금신보』의 발행인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와 교유에 관한 자료들을 가능한 폭 넓게 수집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가 간행한 『양금신보』를 다시 살펴보면서 발행인으로서의 그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두남의 삶과 음악이 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조선 중기 음악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김두남의 생애와 교유

김두남(金斗南, 1559~1647)의 본관은 원주(原州)이며, 자(字)는 일숙(一叔), 호(號)는 파강(巴江)이다. 명종 14년(1559, 己未) 7월 27일에 아버지 김영(金瑛, 1522~1583)과 어머니 공주 이씨(公州李氏, 1535~1591)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사료 1> 『원주김씨대동보』, '파강공파 16세 김두남'[1)]

자 일숙(一叔), 호 파강(巴江). 1559년(己未) 7월 27일 생. 임오(壬午)년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세마(洗馬)가 되었고, 가선(嘉善) 대부에 올랐으며,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역임하였다. 호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일대의 명류와 함께 모여 <동동[登登曲]>을 불렀다. 1647년(丁亥) 10월 13일 졸. 묘 시흥군 수암면 산현리 산 25의 5호, 비석이 있는데 과암(果菴) 이무(李袤)가 찬하였다.

배(配) 정부인(貞夫人) 김해 김씨(金海金氏), 아버지는 문부사(文府使) 희필(希弼), 조부는 현감 첨수(添壽), 증조부는 참의(參議) 세내(世匄), 외조부는 진사 남양(南陽) 홍한정(洪漢貞). 1560

1) [巴江公派 16世 金斗南] 字 一叔 號 巴江. 一五五九 己未 七月 二十七日 生. 壬午中司馬以洗馬 陞嘉善 廣州牧使 贈戶判 與一代名流結登登曲楔. 一六四七年 丁亥 十月 十三日 卒. 墓 始興郡 秀岩面 山峴里 山 二五의 五호 有碣果菴李袤撰. 配 貞夫人金海金氏 父文府使希弼 祖縣監添壽 曾祖參議世匄 外祖進士南陽洪漢貞 一五六〇年 庚申 二月 二十八日 生 一六三四年 甲戌 正月 二十五日 卒. 墓合封. 『原州金氏大同譜』(서울 : 原州金氏大同譜 編纂委員會, 1982), 제1권, 79-80쪽.

년(庚申) 2월 28일 생, 1634년(甲戌) 정월 25일 졸. 묘 합봉(合封).

김두남의 집안은 대대로 이름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아버지 김영은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 종5품)로 이조 참판(吏曹 參判)에 추증되었고, 조부 김안우(金安祐, 1498~1553)는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증조부 김말손(金末孫, 1469~1540)은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이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종2품)를 역임하였으며,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외조부는 사정(司正, 정7품) 이린(李麟)이고, 외증조부는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곤(李袞)이며,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명덕(李明德, 1373~1444)이 외갓집 어른이다.[2]

김두남의 배우자는 김해 김씨(金海金氏, 1560~1634)로 아버지는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이며 담양 도호부사(潭陽都護府使)를 역임한 김희필(金希弼)이고, 조부는 현감(縣監) 김첨수(金添壽), 증조부는 참의(參議) 김세내(金世匂)이며, 외조부는 진사 홍한정(洪漢貞)이다.

김두남은 선조 15년(1582, 壬午) 식년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는데, 기록된 거주지는 한양이다.[3] 품계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에 올랐고, 광주 목사(廣州牧使, 정3품)를 역임하였으며, 호조 판서(戶曹 判書)에 추증되었다. 그가 호조 판서로 추증된 이유는 그의 네 번째 아들 김준룡(金俊龍, 1586~1642)의 병자호란 때의 공적 때문이다. 김준룡은 무과에 급제하였고, 전라 병마절도사(全羅 兵馬節度使)를 역임하였는데,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되었고, 숙종 12년(1671, 辛亥)에는 충양(忠襄)이라는 시호를 받았다.[4]

---

2) {同知中樞府事贈戶曹判書金公墓碣銘} 代有聞人 曾祖諱末孫 階通政爲兵馬節度使 贈兵曹判書 祖諱安祐 贈左贊成 考諱瑛 贈吏曹參判 妣貞夫人公州李氏 司正諱麟禎之女 吏曹判書袞之孫 判中樞院明德之後. 『白軒先生集』, 卷46.29a.

3) 김두남. 선조(宣祖) 15년(158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30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4) {巴江公派 17世 金俊龍} 字 秀天. 一五八六年 丙戌 十二月 二十二日 生. 戊申武科 官至北兵使 丙子以全羅兵使 戰捷于水原光教山 贈左贊成 辛亥諡號忠襄公. 一六四二年 壬午 十一月 五日 卒. 墓 始興郡 君子面 君子里 山 一三八의 一호 下有神道碑 許眉叟穆撰, 吳市南

김두남은 인조 25년(1647, 丁亥) 10월 13일 졸하였고, 묘는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 산현리(山峴里) 산 25-5에 있는데, 비문은 과암(果菴) 이무(李袤, 1600~1684)가 지었다. 이무는 김두남의 벗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낸 이경전(李慶全, 1567~1644)의 아들이다. 이경전은 김두남, 의곡(義谷) 박정현(朴鼎賢, 1561~1637), 죽천(竹泉) 이덕형(李德泂, 1566~1645) 등과 모여서 뱃놀이를 하고 시를 수창하며 스스로 소식(蘇軾, 북송, 1036~1101)의 뱃놀이나 용재(容齋) 이행(李荇, 1478~1534)의 잠두록(蠶頭錄)에 비길 만하다고 평한 발문을 남기기도 하였다.[5] 그리고 영의정을 지낸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김두남의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다. 이경석은 『현금동문유기』(玄琴東文類記)의 저자 이득윤(李得胤, 1553~1630)의 묘갈명도 지었다.[6]

본고에서는 이경석이 지은 김두남의 묘갈명을 중심으로 김두남의 생애와 교유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7]

김두남은 젊었을 때부터 사장(詞場 또는 文壇: 문인들의 사회)에 나가 교유하였는데, 성예(聲譽, 세상에 떨치는 이름과 칭송받는 명예)가 있었고, 함께 한 벗들도 모두 일대의 이름난 이들이었다. 『홍길동전』을 남긴 허균(許筠, 1569~1618)의 중형인 하곡(荷谷) 허봉(許篈, 1551~1588)과도 교유하였는데, 허균은 김두남의 풍자가 당시에 으뜸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사료 2> 허균, 『성소부부고』, '학산초담'[8]

두남(斗南) 김일숙(金一叔)은 글은 보통이었으나, 남을 풍자하는 작품으로는 그 당시에 으뜸이었다. 이웃에 어른(丈人)이 있었는데 앞니가 길어 홀(笏) 모양 같았음으로, 다음과 같이 찬(贊)을

始復 碣文 鄭東溟斗卿撰, 謚狀 蔡樊菴濟恭撰. 配 貞敬夫人淳昌林氏 父主簿繼 祖進士宗遠 曾祖僉正洙 外祖進士光州金應台 一五八三年 癸未 三月 二十九日 生 一六五八年 戊戌 十二月 十八日 卒. 墓合封. 『原州金氏大同譜』(1982), 제1권, 96-97쪽.

5) 金巴江露湖舡遊記跋. 『石樓遺稿』, 卷1.40b-42b.

6) 李景奭(저), 墓碣銘. 『西溪先生文集』, 卷4.31a-37a.

7) 李景奭, 『白軒先生集』, 卷46.28b-32a.

8) 鶴山樵談.. 『惺所覆瓿藁』, 卷26.34a. 한국고전번역원(http://www.minchu.or.kr) 해석 인용.

지었다.

나이 일흔에(生年七十)
긴 것이라곤 이[齒]니(所長者齒)
이는 홀을 만들만 허구려(齒兮可爲笏兮)

또 이웃사람이 눈이 가늘어 겨우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다음과 같이 찬을 지었다.

모든 것 보고 싶지 않아 한세상을 하찮게 보는 자인가
(不欲觀諸眇視一世者邪)
보이는 것이 작으니(其見者小)
우물에서 하늘을 보는 자 아닌가(豈非坐井觀天者邪)
그 눈동자를 보면(觀其眸子)
그 사람 무슨 수로 속마음 숨길쏜가(人焉瘦哉)

나의 중형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였다.

김두남은 선조 15년(1582, 壬午) 식년시에 생원이 되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여러 차례 과거를 보았으나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하였다. 같은 해 생원이 되어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한 인물로 병조·이조 판서를 지낸 묵재(默齋) 이귀(李貴, 1557~1633)가 있다. 이귀는 선조 16년(1583) 일부 문신들이 이이(李珥, 1536~1584)와 성혼(成渾, 1535~1598)을 공박, 모함하여 두 유현(儒賢)의 처지가 위태롭게 되자 여러 선비들과 함께 글을 올려 논변하여 스승을 구해낸 인물이다.[9] 그런데 이귀를 비롯한 여러 유생들이 이 일로 성균관에서 손도(損徒)[10]되었다. 이에 김두남은 성균관 장의(掌議) 이창후(李昌後, 1554~?)를 찾아가 이들을 풀어주자며 누차 건의하였으나 시론을 두려워 한 이창후는 풀어주지 않았다고 한다.[11] 김두남의 의리(義理)와 의

9) 선조 20년(1587, 丁亥) 3월 1일 기사. 『宣祖修正實錄』, 卷21.1a-25b.

10) 손도(損徒)는 조선시대 성균관·향약·계·향회·향교·서원 등에서 처해지던 벌칙 중 한 종목으로, 손도에 처한 사람은 강약시(講約時)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문밖에서 들어야 하며, 향약의 유사(有司) 등의 직임에 임용되지 못하였다.

11) 昌後曰 玉汝安在 允謙曰 與黃愼今方來宿吾家耳 仍招貴出 貴與愼卽出見 則昌後語貴

기(義氣)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김두남의 의기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선조 21년(1588, 戊子)에 있었다. 서울 선비들은 나랏일을 하는 장상(將相)들의 무능함과 그로 인한 국가적 위태로움을 탄식하며 대규모로 모여 시위하였다. 그 중 김두남을 포함하여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아들 이경전, 우의정 정언신(鄭彦信)의 아들 정협(鄭協),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남편 김성립(金誠立) 등 명가(名家)의 자제 30여 명은 <동동[登登曲]>을 불렀다고 한다.

<사료 3> 『난중잡록』, 선조 21년(1588, 戊子) 기사[12]

서울의 선비들이 무려 백명 천명으로 떼를 이루어 미친 짓, 괴이한 짓들을 하는데, 그것이 천태만상으로 해괴하기 짝이 없다. 때로는 무당 흉내를 내면서 덩실거리고 노래하며 춤을 추기도 하고, 혹은 초상과 장사지내는 일을 꾸며 껑충거리고 흙을 다지기도 하며, 동으로 갔다 서로 달렸다 웃었다 울었다 하였다. 그리고는 저희들끼리 묻기를, "무슨 일로 웃느냐? 무슨 일로 우느냐?" 하고는, 큰 소리로 스스로 답하기를, "장상(將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어서 웃는다. 국가가 위태롭고 망해 가고 있어서 우는 거다." 하면서,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곤 하다. 한때 이것을 <동동[登登曲]>이라고 부르다. 당시 이것을 주창한 사람은 정효성(鄭孝誠)·백진민(白震民)·유극신(柳克新)·김두남(金斗南)·이경전(李慶全)·정협(鄭協)·김성립(金誠立) 등 30여 인이었고, 이들을 추종하여 법석을 떤 자들은 부지기수였다.

<사료 4> 『연려실기술』, '선조조고사본말'[13]

이때 도성 안 선비들이 천·백(千百)으로 떼를 지어, 미치광이나 괴물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웃다가 울고 하여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깨비나 무당의 흉내를 내며 다니니 흉하고 놀랍기 말할 수 없었는데, <동동[登登曲]>이라 부르는 것이었다. 명가(名家)의 자제인 정효성(鄭孝誠)·백진민(白震民)·유극신(柳克新)·김두남(金斗南)·이경전(李慶全)·정협(鄭協)·김성립(金誠立) 등 30여 명이 그것을 불렀다. 사람들이 이것을 난리가 나고 나라가 망할 징

曰 頃日泮中金斗南等 累以君解損事言于吾 吾畏劫時論不能解之. 『混定編錄』, 卷5.

12) 戊子. 『亂中雜錄』, 1. 한국고전번역원 해석 인용.

13) 宣祖朝故事本末. 『練藜室記述』, 卷15. 한국고전번역원 해석 인용.

조라고 하였다.

김두남은 익위사 세마(翊衛司洗馬, 정9품)부터 시작하여 시직(侍直, 정8품), 부수(副率, 정7품), 위수(衛率, 종6품)를 거치면서,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는 동궁(東宮)을 호위하는데 힘써서, 품계(品階)가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에 올랐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정3품)가 되었다. 그의 삼대(三代)가 추증(追贈)된 것은 이 때문이다.

중년에는 산직(散職, 일정한 직임(職任)이 없는 관직)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근거 없는 말들이 돌았다. 이에 아무렇지 않은 듯이 처신하였으나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대한 유언비어는 그가 상중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효(孝)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에서는 큰 풍문이 되었고, 결국 선조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가 교유했던 벗인 이덕형의 해명으로 오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다.

<사료 5> 선조 34년(1601, 戊子) 1월 17일 기사[14]

이덕형(李德馨)이 아뢰기를, … "요즘에는 나이 젊은 사람들이 잘못 보고 듣고는 남의 행동에 대하여 너무 과중(過重)하게 논평하여 한번 누명을 입으면 천지간에 자립(自立)할 수 없게 됩니다. … 김두남(金斗南)이 상중에 있을 때 고기를 먹었다고 그의 동생이 속인 것 등은 모두 놀랄 일입니다. 비록 소관(小官)들의 일이나 사실이 아닌 말로 인하여 일생 동안 영원히 폐인이 되어버린다면 어찌 성대(聖代)의 일이라 하겠습니까. 마땅히 조정에 물어 별도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일들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그 사람들 일에 대하여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김두남은 광해 즉위년(1608, 戊申) 8월에 임실 현감(任實縣監)으로 부임하

14) 선조 34년(1601, 丙辰) 1월 17일 기사. 『宣祖實錄』, 卷133.27a-28b. 한국고전번역원 해석 인용.

였고, 광해 4년(1612, 壬子) 정월에 교체되어 돌아왔다. 그는 임실에서 떠나 호남 일대를 유람한 후에 기행록(紀行錄)을 써서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1563~1628)에게 보냈는데, 이것을 이수광이 읽고 신선과 같은 그의 유람을 부러워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사료 6> 이수광, 『지봉집』 '김임실일숙기행록후서'[15]

내가 예전에 남쪽에서 종사(從事)하였을 때 무주(茂朱)를 지나, 남원(南原), 임실(任實), 전주(全州)의 경계인 용담(龍潭, 진안)의 몇 고을의 경치가 좋다고 자주 들었다. 거의 인간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 그 곳에 이를만한 아무 인연이 없었다.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 신선이 되기에는 아직 아니라고 한탄하며, 꿈에서 가고 오는 것을 상상하길 모두 17년이 되었다. 친구 김일숙(金一叔)은 운수(雲水, 임실)에서의 관직을 떠나 용담(龍潭)으로 행하고, 금주(錦州, 금산)의 수령을 역임하였다. 대방(帶方, 남원)의 경계에서부터 거의 호남(湖南)의 반에 족적을 남기고 기행록(紀行錄)을 써 나에게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을 얻어 다 읽고, 스스로 그 길을 지나 7백리 간을 갔다가 돌아왔다. 아름다운 산수, 기이한 적관(蹟觀)이 읊조리는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책을 펴기만 하면 내용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동안 유람하기를 소원하였으나 얻을 수 없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모두 눈 아래에 있다.

이후에도 김두남은 현령과 군수를 거쳐, 광해군 10년(1618, 戊午)에는 광주 목사(廣州牧使)를 역임하였다.[16] 인조(仁祖)조에는 나이가 많음에도 관직을 올려 주어, 공이 칠팔십 세의 노인임에도 승질(陞秩, 직위가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던 일)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에 제수되

15) {金任實一叔紀行錄後敍} 余昔從事于南 足涉茂朱 南原 任實 全州之境 飽聞龍潭數州之勝 殆非人世 而無緣一至其地 自恨凡骨未蛻 而夢想去來者 蓋十七寒暑矣 友人金君一叔出宰雲水 由龍潭歷錦州 以至帶方之界 足迹幾湖南半 而以其所爲紀行錄 寄示於余 余得而卒業 自其道途所經往返七百里間. 佳山美水, 奇蹟異觀, 無一不入於吟詠之中 使人開卷了了 凡向來所願遊而不得者 一朝皆在眼底. 『芝峯集』, 卷21.19a.

16) 김두남이 광주 목사 시절에 경기 감사(京畿監司) 유희량(柳希亮)이 박의립의 고변 사건에 대해 장계하는데, 김두남이 올린 첩정(牒呈,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함)에 근거하였다고 한다. 광해군 10년(1618, 戊午) 4월 29일 기사. 『光海實錄』, 卷44.108a.

었다. 그의 만년(晩年)은 자손이 영화롭게 잘 모셔서 입맛에 맞추어 따뜻하게 음식을 봉양함이 두루 갖추어졌다고 한다.

김두남은 인조 25년(1647, 丁亥) 10월 13일 양천(陽川)의 별장에서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였다. 사후에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되었는데, 그의 네 번째 아들 김준룡(金俊龍, 1586~1642)이 병자호란 때 청(淸)의 10만 대군을 수원 광교산에서 맞아 혼전을 벌인 끝에 청 태종의 부마(駙馬) 양고리(楊古利) 외 두 명의 대장을 사살하고 크게 승리하여, 영사(寧社)의 종훈(從勳)으로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17]

김두남의 성품과 취향에 대해 이경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사료 7> 『백헌집』, '동지중추부사증호조판서김공묘갈명'[18]

친구에게는 신의(信義)로 대하여, 그 자손을 대함에도 벗이 살아있거나 죽은 뒤의 차이가 없었다. 향당(鄕黨)에 살면서 한결같이 두터이 하여 고향의 늙은이와 젊은이를 대함에 언행의 어렵고 쉬움, 느리고 급함의 성격을 달리하여, 진실로 헤아려서 대접하였기에 모두 기뻐하였다. 간혹 술자리 모임을 만들고, 성대한 술잔치에서는 여러 군데 바쁘게 응수함을 밤이 끝나도록 하여도 싫증내지 않았다. 또한 깊이 취하지도 않았다. 때때로 흥에 겨워 혹 말을 타고 들판으로 갔고, 혹 호수에 배를 띄웠으며, 또 혹 나막신을 신고 걸어서 높은 언덕을 올라감에 편편히 가볍게 오르니, 바라보면 땅의 신선이라 할 만하였다. 한가하게 지낼 때는 날마다 친히 역사를 기록하였고, 손에는 항상 서책을 휴대하였다. 대개 스스로 즐기는 것이 그것에 있어서였다.

17) 贈戶曹判書 以次子錄寧社從勳也. 『白軒先生集』, 卷46.29b.

18) [同知中樞府事贈戶曹判書金公墓碣銘] 於朋友信而義, 遇其子姓 不以存沒異. 居鄕黨壹於厚 鄕人老少難易緩急之性不同 而推誠以接 皆歡如也. 間或置酒作會 觥籌交錯 而左酬右酢 終夕不倦. 亦不沈酣. 時復乘興 或騎而野 或航于湖 又或步屨而登高丘 翩翩乎有輕擧之氣 望之若地仙. 閑居 日親書史 手常携卷 蓋有所自娛者存焉. 『白軒先生集』, 卷46.30a.

Ⅲ. 『양금신보』 간행 경위

김두남은 광해 즉위년(1608, 戊申) 8월에 임실 현감으로 부임하였다가 광해 4년(1612, 壬子) 정월에 교체되어 돌아갔다.

<사료 8> 『호남읍지·임실』, '선생안'[19]
김두남(金斗南). 경신년(戊申, 1608) 8月 도임(到任). 임자년(壬子, 1612) 정월 체귀(遞歸).

김두남이 임실 현감을 그만두어야 했던 이유는 사헌부의 탄핵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헌부는 그가 임실 현감을 지내면서 탐욕과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탄핵하였다.

<사료 9> 광해군 4년(1612, 壬子) 1월 6일 기사[20]
사헌부가 아뢰기를, "임실 현감(任實縣監) 김두남(金斗南)은 부임한 후에 오로지 탐욕과 횡포만 일삼아 무분별하게 긁어모으고 있으며,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웃 고을의 기생을 데려다 살면서 갖가지 폐단을 끼치고 있으니, 파직하라 명하소서." …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그러나 유몽인(柳夢寅, 1559~1623)과 이경석은 수령직을 지낸 김두남에 대해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 유몽인은 김두남과 동년배로 김두남이 생원이 된 해에 그는 진사가 되어[21] 성균관에서 함께 수학하였다. 유몽인의 증언에 의하면, 김두남이 임실을 4년간 다스리면서 정사가 잘 다스려져 폐해가 제거되었고 전란 전의 옛 관습을 바로잡았다고 하였다.[22]

---

19) [先生案] ,金斗南. 戊申八月到任, 壬子正月遞歸. 『湖南邑誌·任實』, 『전라도읍지』(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제15권, 85쪽.

20) 광해군 4년(1612, 壬子) 1월 6일 기사. 『光海實錄』, 卷17.40a. 한국고전번역원 해석 인용.

21) 유몽인. 선조(宣祖) 15년(158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2등(二等) 15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2) [贈左贊成金公神道碑銘] 父諱斗南 昭敬時名人 以治行高第貴 八十九以大年 至同中

<사료 10> 유몽인, 『어우집』, '양금신보발'

나는 동년배 김두남(金斗南) 일숙(一叔)과 상음(賞音)으로 교유하였다. 임실을 4년간 다스리면서 정사가 잘 다스려져 폐해가 제거되었고, 전란 전의 옛 관습을 바로잡았다. 여기<임실>에 용성(龍城, 남원)에 있는 양덕수 악사를 불러들여, 태평유보(太平遺譜)를 만들었는데 옛 악보에서 약간의 곡을 모아 편집하여 목판에 아로새겨 넣었다. 내가 용성을 다스리는데 때마침 여기 <용성>현에 왔다. 김두남이 한 권을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양덕수 악사는 옛 것을 좋아하는데, 옛 음악이 희성(希聲: 성긴 소리)이라 좋아한답니다. 옛 악보에서 단지 7~8곡만 취한 것은 나머지는 모두 촉급한 곡이라 꺼려해서 싣지 않았지, 비단 <임실>현(縣)에 재력이 적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23]

그러나 유몽인의 말은 결과만을 보았을 때 그렇고, 김두남이 옛 관습을 바로잡고 폐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형장(刑杖)을 무리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관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고, 사헌부에 보고되어 탄핵되었던 것 같다. 더구나 그는 이웃 남원에 있는 양덕수 악사를 임실로 데려와 여러 날[累日] 머무르게 하면서 거문고 연주를 듣고, 악보를 만들도록 권유하였다. 목판본 『양금신보』 이전에 양덕수 악사가 만든 악보가 『태평유보』(太平遺譜)이다.[24] 양덕수 악사가 거문고를 잘 연주하였고, 글을

樞. 『記言』, 卷17. 1a. 김두남의 아들 김준룡의 묘갈명에는 그의 아버지 두남(斗南)은 소경(昭敬, 선조: 1567~1608) 때의 명인(名人)으로 치행(治行)이 뛰어나 고귀하여 졌고, 89세 장수함으로 인하여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었다. 김준룡의 비문은 당시 우의정(右議政)이었던 허목(許穆)이 글을 짓고, 글씨와 전액(篆額)을 이조 참판 오시복(吳始復)이 쓴 것으로 비문은 허목의 문집인 『記言』, 卷17.1a-6a에 기록되어 있다.

23) 吾同年金君斗南一叔甫, 賞音之交也. 治任實之四載 政擧弊祛, 于公家兵前舊貫實條而釐之. 於是乎延梁樂師于龍城, 創太平遺譜, 輯若而章繡諸梓. 會余宰龍城, 道是縣. 金君出一卷寄余曰 梁師好古者, 好古樂希聲. 就舊譜只取七八, 餘皆病其促 不之載, 非但縣鮮材力爾也. '梁琴新譜跋', 『於于集』, 卷6.44a.

24) 신대철, "『양금신보(梁琴新譜)』 재람(再覽)" 『제5회 동아시아 악률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2010년 11월), 4쪽에서 "양덕수는 『양금신보』를 목판본으로 내 놓기 이전에 『태평유보』를 지었고, 『태평유보』에 수록된 악곡 중에서 7~8곡을 택해서 다시 양덕수가 내놓은 음악선집이 『양금신보』가 된다."라고 하였다. 이 견해는 양덕수가 만든 『태평유보』를 옛 악보[舊譜]로 간주하여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해석을 조금 달리한다. 왜냐하면 양덕수를 남원에서 임실로 데려 와 만든 『태평유보』를 옛 악보[舊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 때문이다. 오

쓸 수 있으니 그의 거문고 연주법을 악보로 남겨 놓으면 임란 이후에 금도(琴道)가 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 <사료 11> 『양금신보』, '양금신보서'[25]
> 나는 양악사(梁樂師)와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 남쪽에 와서 만나 옛이야기하면서 슬퍼하였다. 그리고 그를 이곳에 불러와 여러 날[累日]을 머무르게 하면서 거문고를 들었다. 내 비록 지음(知音)은 아니나, 서늘한 칠현(七絃)의 소리는 태고(太古)의 유음(遺音)임은 안다.
> 내가 양악사에게 말하기를 "거문고를 잘 타고, 또 글에도 능하니, 악보를 지어 연주법을 전하여 금도(琴道)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악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더니, 양악사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 이에 종이에 금을 그어 거문고를 그리고 먼저 왼손의 안현(按絃)하는 방법을 세운 연후에 무릇 오음(五音)의 청탁(淸濁)·조습(燥濕)·완급(緩急)을 그 곡조를 따라 하나하나 바로 잡지 않음이 없어, 번거롭게 지시하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맥(正脉)이 관통하게 되었다.

양덕수 악사는 가장 먼저 거문고 산형을 그리고 다음으로 왼손 안현법 등의 거문고 연주법을 세웠다. 그리고 악곡은 옛 악보에 있는 내용 중 7~8곡만을 선택하여 청탁(淸濁)·조습(燥濕)·완급(緩急)을 그 곡조를 따라 하나하나 바로 잡았다. 양덕수 악사가 7~8곡만을 선택한 이유는 1차적으로 악보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였다. 왜냐하면 김두남은 한 권의 필사본으로 끝내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목판본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목판본은 제작할 때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다는 보관

히려 양덕수는 소장한 옛 악보에서 7~8곡을 취하여서 『태평유보』를 만들어 놓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실현에서 목판본 『양금신보』의 정본이 제작되고, 인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황상 맞을 것 같다. 이 발표문을 통해서 목판본 『양금신보』 이전에 『태평유보』가 먼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25) 余於梁師舊要也. 南來邂逅叙舊而悲. 仍邀致于此 累日留連, 聽其琴聲. 則余雖不知音者 冷冷七絃 其太古之遺音也. 余謂師曰 善彈琴 又能文 作譜傳法 使琴道不絶 非師之責耶? 師曰 諾. 於是畫紙爲琴 先立下指按絃之方 然後凡五音之淸濁燥濕緩急無不隨其曲調而一一釐正 不煩指授而正脉貫通. 『梁琴新譜』(서울: 通文館, 1959), 52쪽.

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다량으로 인쇄할 수가 있어 대량 생산하여 대중에게 보급하기도 쉽고, 목판본만 온전하다면 무한정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그는 목판본 거문고보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임실현의 경제력과 노동력을 총 동원하였다.[26] 그러나 임실현의 관원들은 목판본 거문고보를 제작하고자 하는 김두남의 바람을 탐욕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거문고보를 제작하기 위해 제멋대로 인력을 끌어들이고,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탐관오리(貪官汚吏)의 횡포가 심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옛 악보에서 선택한 7~8곡은 양덕수 악사의 의견을 따라 빠른 곡이 아니라 아닌 느린 곡 위주로 선택하여 『태평유보』의 거문고 음악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양덕수가 남원에 여러 날[累日] 머무르고 떠난 후, 김두남은 양덕수가 지은 『태평유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목판본 『양금신보』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27]

그런데 『양금신보』의 첫머리는 거문고 산형이 아니라, 금아부(琴雅部)와 현금향부(玄琴雅部)로 시작되며 거문고 산형은 그 다음에 나온다. 따라서 금아부와 현금향부로 구분한 『양금신보』 금론(琴論)의 체제는 김두남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금신보』에 기록된 금아부(琴雅部)[28]의 내용은 옛 문헌들에서 전하는 중국의 금(琴)의 기원과 상징에 관한 기록이 집록(輯錄)된 것이다.

---

26) 『조선왕조실록』 성종 13년(1482 임인 / 명 성화(成化) 18년) 7월 6일(계유). 성종 13년(1482)에 가뭄이 심하여 『두시』를 비롯한 『춘추』, 『이백시』, 『용학구결』 등의 인쇄발행을 멈추고 그 비용을 가뭄극복에 썼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당시의 목판본 제작비용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7) 김성기의 제자들이 김성기의 거문고 가락을 바탕으로 『낭옹신보』(浪翁新譜)를 짓고, 한립의 제자인 응천후인이 『한금신보(韓琴新譜)』를 짓은 것처럼 김두남은 양덕수가 지은 『태평유보』를 바탕으로 『양금신보』(梁琴新譜)를 지어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琴雅部. 樂記云 伏羲作琴 ㉠神農削桐爲琴. ㉡琴者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琴者樂之統也. 故君子所當御也. 琴三尺六寸六分 象期之日也. 腰廣四寸 象四時也. 前廣後狹 象尊卑也. 上圓下方 象天地也. 絃有五 象五行也. 徽十有三 象十二律也 餘一閏也. 大絃爲君 小絃爲臣 文王武王各加一絃 是謂七絃. 『梁琴新譜』(서울: 通文館, 1959), 1-2쪽.

〈표 1〉 문헌과 『양금신보』 금아부에 기록된 중국 금(琴)의 기원과 상징

	원전	악서 (宋)	삼국사기 (1145)	태고유음 군서요어 (1413년 경)	악학궤범 (1493)	양금신보 금아부 (1610)
복희씨 작금(作琴)	琴操		1			1
하늘의 천성회복	琴操		2			
㉠ 신농씨 오동나무를 깎아 작금(作琴)	新論					2
㉡ 금(琴)은 금(禁). 인심을 바로잡음	白虎通義			1		3
㉢ 금(琴)은 악기 중 으뜸	風俗通			2		4
금의 길이 3척6촌6푼은 1년	琴操	1	3	3	1	5
금의 너비 6촌은 合六	琴操	2	4	4	2	
허리 너비 4촌은 사시(四時)	琴操	4			4	6
판 위는 연못(池), 아래는 물가(濱)	琴操		5	5		
앞이 넓고 뒤가 좁음(前廣後狹)	琴操	5	6	6	5	7
위가 둥글고 아래가 모남(上圓下方)	琴操	6	7	7	6	8
다섯 현은 오행(五行)	琴操	3	8	8	3	9
열세 개 휘(徽)는 12율과 윤달	琴操	7			7	10
대현(大絃)과 소현(小絃)은 군신	琴操		9	9		11
형상은 봉황, 몸체는 삼천양지(三天陽地)	琴書	8			8	
문왕, 무왕의 2현 추가	琴操	9	10	10	9	12
7현이라 이름		10			10	13
금의 길이 4척 5촌 사시(四時)·오행(五行)	風俗通		11			
7현은 7성(七星)	風俗通		12			

『삼국사기』와 『악학궤범』에도 『양금신보』 금아부와 대동소이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중국 금론의 원전(原典)은 원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후한(後漢) 시대의 『금조(琴操)』와 『풍속통』(風俗通)이다.[29] 그리고 『악학궤범』에 기록된 중국의 금론[30]은 송(宋) 대의 진양의 『악서』(樂書)[31]가 그 전거(典據)가 되었다.

그런데 『양금신보』의 금아부에 기록된 ㉠ 신농씨가 오동나무를 깎아 금(琴)을 만들었다(神農削桐爲琴). / ㉡ 금(琴)은 금지하는 것이다. 사악함을 금

29) 樂. … 按『琴操』曰 伏犧作琴以修身理性 反其天眞也. 又曰 琴長三尺六寸六分 象三百六十六日 廣六寸 象六合 文上曰池 池者水也. 言其平 下曰濱 濱者服也. 前廣後狹 象尊卑也 上圓下方 法天地也. 五絃象五行 大賢爲君 小絃爲臣 文王武王加二絃. 又『風俗通』曰 琴長四尺五寸者 法四時五行 七絃 法七星. 『三國史記』, 卷32. 6a.

30) 雅部樂器圖說-琴. 『樂學軌範』, 卷6. 21a-22b.

31) 七絃琴. 『樂書』, 卷120. 1b-3a.

지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다(琴者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 ㉢ 금(琴)은 악기 중 으뜸이기에 군자는 마땅히 금을 다뤄야 한다(琴者樂之統也 故君子所當御也)는 『삼국사기』와 『악학궤범』에 없는 새로운 것으로, 원전은 한(漢) 대의 『신론』(新論)[32]과 후한시대의 『백호통』(白虎通)[33] 그리고 『풍속통』(風俗通)[34]이다. 특히 ㉡, ㉢은 명(明) 대 원균철(袁均哲)의 『태고유음』(太古遺音)[35]과 주권(朱權)의 『태음대전집』(太音大全集)[36]의 군서요어(群書要語) 등에서도 발견된다. 『태고유음』의 군서요어 역시 『양금신보』의 금아부처럼 금보의 가장 첫머리에서 금(琴)의 기원과 상징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문헌의 금론(琴論) 가운데 일부만 발췌하여 기록한 점에서도 유사하다. 아마도 『태고유음』 등에서 가장 첫 기록으로 군서요어를 기록하는 전통이 『양금신보』 금아부의 탄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양금신보』 현금향부(玄琴鄕部)의 앞부분은 거문고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삼국사기』의 내용을 축약하였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정리하였다. 다만 『삼국사기』 「악지」에는 귀금(貴金) 선생의 거문고의 기예를 전수받은 제자가 안장(安長)과 청장(淸長)이라고 기록되었으나 『양금신보』에는 장청(長淸)과 안청(安淸)으로 다르게 기록되었다. 그리고 일부 기록의 순서가 『삼국사기』 「악지」와 달라졌다. 끝으로 고려 의종(毅宗) 때 정서(鄭敍)의 <정과정(鄭瓜亭)> 삼기곡(三機曲)에서 대엽의 만(慢)·중(中)·삭(數)이 나왔다는 내용을 첨가하였다.[37]

---

32) 桓譚新論曰 昔神農始削桐爲琴. 『太平御覽』, 卷814.5a.

33) 琴者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白虎通義』, 卷上.29a.

34) 琴者樂之統也 與八音並行 然君子所常御者 琴最親密不離於身 非必陳設於宗廟鄕黨 非若鐘鼓羅列於虡懸也. 『風俗通』, 卷6.7a.

35) 琴者禁也 禁止於邪,以正人心也. 出白虎通. 琴者樂之統也 君子所當御也. 出風俗通. 琴長三尺六寸六分 廣六寸 上曰池 下曰賓四 前廣後狹 象尊卑也 上圓下方 法天地也 五絃象五行也 大絃爲君 小絃爲臣 文王武王加二絃以合君臣之恩. 出琴操.(이하 생략). 『太古遺音』, 卷上. 1a-2a. 「群書要語」

36) 『太音大全集』, 卷4.1a-2a.

37) 『梁琴新譜』, 2-4쪽.

〈표 2〉 문헌과 『양금신보』 현금항부에 기록된 거문고의 유래

	삼국사기 (1145)	악학궤범 (1493)	양금신보 현금항부 (1610)
거문고 제작에 관한 『新羅古記』 云	1		
『羅古記』 云		1	
진나라 사람이 7현금을 고구려에 보냄	2	2	1
고구려인이 7현금이 악기라는 것을 앎	3		
고구려인이 음율은 모름	4		
고구려인이 연주법은 모름	5		2
금을 연주하는 자에게 상을 주기로 함	6		
왕산악이 법제를 고치고 겸하여 곡을 지음	7	3	3
검은 학이 춤을 춤(玄鶴來舞)	8	4	4
현학금, 현금이라 부름	9	5	5
옥보고가 송명득에게 전수	10		6
송명득 귀금에게 전수	11		7
왕이 윤흥에게 금의 연주법을 배워오라 명함	12		8
윤흥과 처가 귀금을 설득	13		
귀금이 안장과 청장에게 전수	14		
귀금이 장청과 안청에게 전수			9
안장이 극상과 극종에게 전수	15		
안청이 극종에게 전수			10
극종의 제자가 다수	16		
극종의 평조와 우조	17		11
총 187곡이 세상에 유행	18		
옥보고의 30곡 소개, 극종의 7곡 단절	19		
고려 의종때 정서가 지은 정과정			12
정과정 삼기곡에서 대엽의 만중삭이 나옴			13

그렇다면 김두남은 실제로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다음 몇 가지 기록을 통해서 김두남이 음악 애호가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김두남은 『양금신보』 서(序)를 쓰면서 본인은 지음(知音)이 아니라고 겸양의 태도를 보이지만 동시에 유장경(劉長卿)[38]의 <탄금(彈琴)>이란 시 구

38) <탄금(彈琴)> 고금 고요한 소리 일곱 줄을 오가는데, 멀리 들려 우는 솔바람 소리 추워라. 옛 곡조 내 비록 사랑하지만, 지금은 타는 사람 드물어 한이로다(泠泠七絃上 靜聽松風寒. 古調雖自愛 今人多不彈). 유장경(劉長卿, 대략 726~786)은 왕유(王維)의 영향을 받아 오언 시(詩)를 잘 지었으며, 시집에 『劉隨州子集』 10권이 있다. 유장경의 시는 조선 문인사회에 크게 유행하였는데, 조성(趙晟, 1492~1555)도 유장경의 시의 운자를 따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절을 인용하여 냉랭칠현(冷冷七絃)의 소리는 태고의 유음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은근히 음악적 지식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유몽인은 『양금신보』를 전해준 김두남을 상음(賞音)으로 교유한 벗이라고 소개하였고,[39] '일숙(一叔, 김두남의 字)은 나의 종자기(鍾子期)'라고 고백하였다.[40] 더구나 김두남은 노래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선조 21년(1588, 戊子) 서울 선비들은 나랏일을 하는 장상(將相)들의 무능함과 그로 인한 국가적 위태로움을 탄식하며 대규모로 모여 시위하였다. 그 중 김두남을 포함하여 명문가의 자제 30여 명은 대표로 <동동[登登曲]>을 불렀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명유(名儒)들과 교유하였고, 특히 유몽인과는 음악으로 교유한 사이였으며, 대규모 시위에서 노래로 항의하였던 그였기에 임진왜란 후 거문고 음악 전승의 앞날을 우려하여, 양덕수에게 악보를 지어 연주법을 전하도록 권유하였다. 결국 김두남은 양덕수 악사가 만든 『태평유보』를 바탕으로 목판본 『양금신보』를 간행하였다. 거문고보를 만드는 것은 청각적 인상에 의해 기억·재현되던 음악을 일정한 기호를 써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이상의 음악적 지식과 개인의 노력, 재물, 시간 등이 요구되는 고도의 음악 활동이다. 따라서 거문고보 제작은 예술적 개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니아의 취향이 내재된 음악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김두남은 광해 4년(1612) 정월에 파직되었으나, 이후에도 현감·현령·군수·목사로 모두 여섯 읍을 옮겨가며 수령이 되었다. 이경석은 그의 수령으로서의 청렴도에 대해서, "그가 청렴결백한 태도로 봉직하여, 파귀(罷歸)하는데 행장을 넣는 자루가 텅 비었다."라고 증언하였다.[41] 결국 임실현에서의 목판본 『양금신보』를 제작하기 위한 재원확충은 김두남 개인의 사리사욕을

39) [梁琴新譜跋] 吾同年金君斗南一叔甫, 賞音之交也. 『於于集』, 卷6.44a.

40) [梁琴新譜跋] 異日芟舍田里 靜坐北窓下 目其譜而指其絃 噭噭譊譊以自娛 不須口傳耳提 而黃卷中亦有一梁師. 然則梁師乎 今之一夔也. 一叔乎 吾之子期也. 『於于集』, 卷6.44b.

41) [同知中樞府事贈戶曹判書金公墓碣銘] 自縣監 轉縣令 郡守 牧使. 凡六邑. 洗手奉職, 罷歸, 行橐蕭然. 『白軒先生集』, 卷46.29b.

위함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셈이다.

IV. 거문고보를 통한 소통

김두남은 『양금신보』를 간행하여 음악 애호가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그가 수령으로 있었던 임실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양금신보』를 목판본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악보가 간행된 이듬해 바로 유몽인이 다스리는 이웃 남원을 찾아가 그에게 『양금신보』를 한 권 주었다. 당시의 유몽인은 "바른 음악은 당연히 중국의 음악이고 그것도 중국의 옛 음악이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는 등 김두남의 업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김두남이 다녀간 이후에 『양금신보』를 직접 살펴보고 실제로 거문고를 연주하면서 거문고 음악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다.[42]

이후에도 『양금신보』가 대량 인쇄되어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조선 시대에 편찬된 거문고보 중 『양금신보』를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거문고보의 수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손에까지 『양금신보』가 들어갔고, 그의 거문고 입문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43]

V. 전사(傳寫) 과정 중 감추어진 발행인

『양금신보』의 간행 이후에 양덕수는 유명인사가 되어, 유몽인조차 『양금신보』를 얻은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사로이 초청할 수가

42) 유목인의 음악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지영, "조선시대 문인의 음악담론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69-7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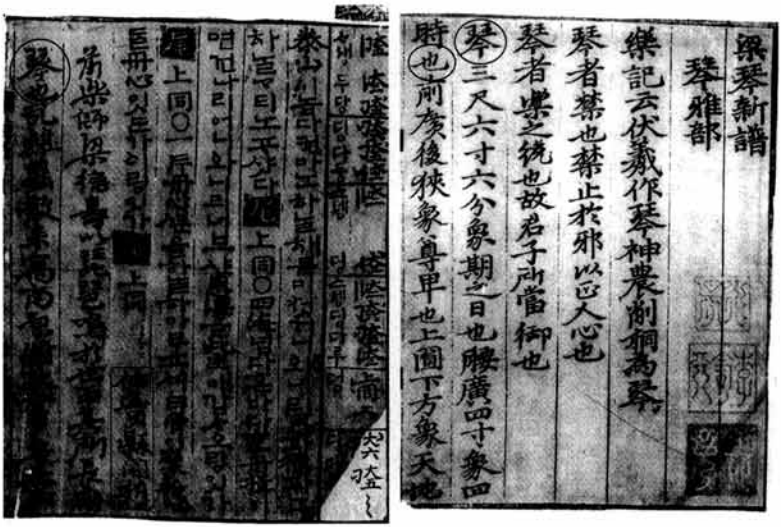
43) 임미선, "음악학적 측면에서 본 『이재난고』의 사료적 가치," 『頤齋 黃允錫의 학문과 사상』(서울: 경인문화사, 2009), 246-51쪽.

없는 경지에 올랐다고 하였다.[44] 반면 『양금신보』를 간행한 김두남은 『양금신보』의 대량 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문고 음악 애호가들에게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는다. 심지어 『양금신보』를 통해 거문고 음악에 입문한 황윤석도 김두남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를 『양금신보』 이본 등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는 총 52쪽에 걸쳐 인쇄되어 있다. 특히 51쪽 뒤 2행부터 52쪽까지는 반정자(半正字)[45]로 서(序)가 기록되어 있다.

〈금보 1〉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 51쪽 (좌)·1쪽 (우)

서(序)⬇


梁琴新譜
琴雅部
樂記云伏羲作琴神農削桐爲琴
琴者禁也禁止於邪以正人心也
琴者樂之統也故君子所當御也
琴三尺六寸六分象期之日也廣四寸象四
時也前廣後狹象尊卑也上圓下方象天地

44) [梁琴新譜跋] 之任旣累月, 邀梁師畢其說. 梁師增一通以進, 諷之益新, 宜布之一世, 諒不可自私者也. 『於于集』, 卷6.44a-b.

45) 반정자(半正字)는 정자체에서 조금 흘려 쓴 한자 서체. 정자체에 가까운 것과 흘림체에 가까운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출처: 네이버사전)

서(序)의 필체는 언뜻 보더라도 서(序) 앞의 정자로 쓴 글씨와 동일한 필체이다.(<금보 1> 참고) 이것은 『양금신보』 목판본의 정본을 한 사람이 기술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양금신보』 목판본의 정본은 서(序)를 남긴 김두남이 직접 기술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서(序)를 김두남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 대필한 거라면 굳이 서(序)만 반정자로 써넣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에 문집이 편찬되는 과정을 보면, 특정 인물의 글을 수집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단계가 있고, 글의 종류에 따라 이를 재분류하는 단계가 있다. 이상의 두 단계에서는 빠진 기록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하고, 문장의 윤문이 이뤄진다. 이렇게 편집이 일단락되면, 문집을 간행하기 위한 대본을 깨끗이 필사하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목판을 새기거나 활자를 조합하여 인쇄를 한다. 따라서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된 문집이라면 일단 정본이 만들어진다.[46]

김두남은 한가하게 지낼 때는 날마다 친히 역사를 기록하였고, 손에는 항상 서책 휴대하기를 즐겼다[47]는 이경석의 증언을 통해서도 글쓰기를 좋아하는 김두남이 『양금신보』의 정본을 직접 기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 52쪽의 서(序)는 '만력 경무(萬曆 庚戊)'로 끝난다.(<금보 5> 참고) 아마도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는 '임실현감 김두남 서(任實縣監 金斗南 序)'가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지막 장(53쪽)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마지막 장이 사라진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에는 서(序)를 쓴 김두남의 이름이 빠지고, 양덕수 악사의 이름만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윤용진 소장 『금보』의 앞부분은 『양금신보』를 그대로 필사한 것인데[48],

---

46) 김문식, "문집의 정본을 만들어야 한다," 고전포럼(한국고전번역원), 2010년 12월 29일 33번째 이야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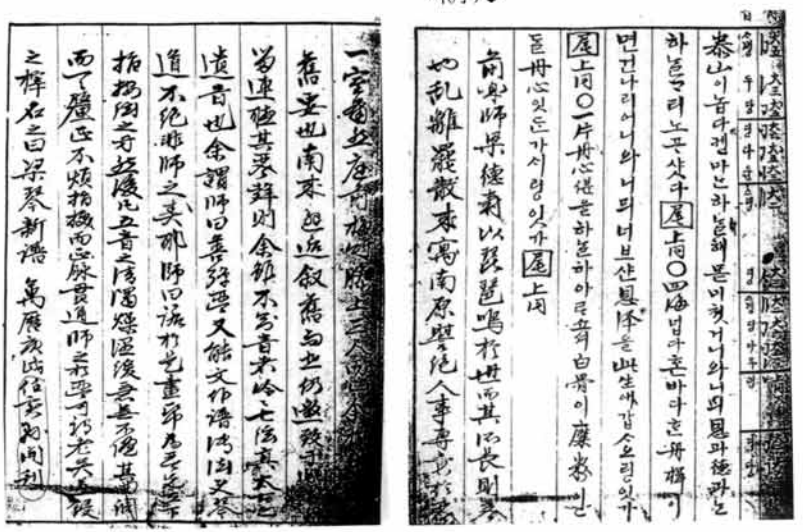
47) [同知中樞府事贈戶曹判書金公墓碣銘] 閑居 日親書史 手常携卷 蓋有所自娛者存焉. 『白軒先生集』, 卷46.30a.

48) 『琴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서울: 국립국악원, 1989), 제18권, 136-48쪽.

여기에서도 김두남의 이름은 생략되었다. 윤용진 소장 『금보』에 필사된 김두남의 서(序)는 '萬曆 庚戌 任實縣 開刊'으로 끝난다. 여기에서 '임실현 개간'은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의 51쪽에 기록된 김두남의 서(序) 앞에 보이는 내용이다. 결국 윤용진 소장 『금보』는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처럼 '任實縣監 金斗南 序'가 빠진 『양금신보』를 저본으로 기록된 셈이다.

〈금보 2〉 윤용진 소장 『금보』 148쪽 b (좌)·a (우)

서(序)



그렇다면 『양금신보』에 서(序)를 작성한 사람이 김두남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규장각 소장 『양금신보』와 한국국악학회에서 간행한 『양금신보』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규장각 소장 『양금신보』는 처음부터 <감군은> 이전까지는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와 동일한 목판본으로 되어 있고, <감군은> 이하 김두남의 서(序)까지는 필사본으로 남아있다.[49] 그리고 한국국악학회에서 간행한 『양금신보』는 필사본으로, 서(序)의

49) 국립국악원에서 출판한 『梁琴新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서울: 국립국악원, 1989), 제

마지막 행 밖에 '任實縣監 金斗南 序'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의 원본에서는 '任實縣監 金斗南 序'가 다음 장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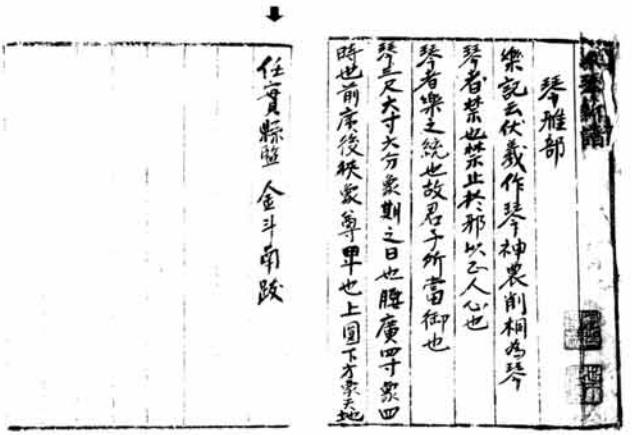
〈금보 3〉 규장각 소장 『양금신보』 (좌)·한국국악학회 간행 『양금신보』 (우)

결국 규장각 소장 『양금신보』와 같이 행을 하나 더 늘려 '任實縣監 金斗南 序'를 기록하거나, 한국국악학회에서 간행한 『양금신보』와 같이 행 밖에 작게나마 '任實縣監 金斗南 序'가 기록된 경우에는 김두남이 『양금신보』의 서(序)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지만,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와 윤용진 소장 『금보』에서와 같이 거문고보의 마지막 장이 생략된 경우 혹은 마지막 장이 생략된 『양금신보』를 저본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발행인 김두남의 이름 석 자가 감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일하게 마지막 장(53쪽)이 남아 있는 『양금신보』는 장서각 소장 『양금신보』로, '任實縣監 金斗南 跋'이란 기록이 마지막 장(53쪽)에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목판본 마지막 장(53쪽)은 현전하지 않는다.

14집은 규장각 소장본을 영인한 것이다.

〈금보 4〉 장서각 소장 『양금신보』 53쪽 (좌)·1쪽 (우)



장서각 소장 『양금신보』는 1, 2쪽과 마지막 장(53쪽)만 필사본이고, 나머지는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와 똑같은 목판본이다. 다만 장서각 소장 『양금신보』 52쪽 끝에 기록된 간행 연도를 나타내는 '萬曆 庚戌'의 필체가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와 다르다.

〈금보 5〉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 52쪽 (좌)·장서각 소장 『양금신보』 52쪽 (우)

장서각 소장 『양금신보』의 '萬曆 庚戌'의 반정자의 필체와 자간(字間)이 김두남 발(跋)에 쓰인 나머지 글자들과 통일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목판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의 경우에는 목판에 새겨진 반정자의 '萬曆 庚戌'를 가리고 인쇄했거나, 인쇄 후에 '萬曆 庚戌'를 지우고[50], 좀 작은 글씨로 '萬曆 庚戌'를 새로 써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VI. 결론

본고에서는 『양금신보』를 간행한 파강(巴江) 김두남(金斗南, 1559~1647)에 관한 자료들을 가능한 폭 넓게 수집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가 남긴 『양금신보』를 다시 살펴보면서 거문고보 발행인으로서의 역할과 소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두남은 여러 관직을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에 올랐고, 사후에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된 인물로, 젊은 나이부터 사장(詞場)에 나가 일대의 이름난 이들과 교유하였으며,[51] 성예(聲譽)가 높았다.

김두남은 임실 현감 시절 이웃 남원에 있는 양덕수를 임실로 데려와 『태평유보』(太平遺譜)를 만들도록 권유하였는데, 바로 목판본 『양금신보』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목판본 『양금신보』의 제작은 순조롭게

50)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의 다른 곳에서도 글자를 지운 흔적이 보인다. 신대철, "『양금신보(梁琴新譜)』 재람(再覽)" 8쪽에 의하면, "통문관 소장 『양금신보』의 첫 부분은 위 규장각 소장본과 같으나 수기의 거문고 육보가 기보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위 장서각 소장본의 현금 산형의 평조와 우조에 보이는 '각삼지 치횡지'와 '우우조 궁괄조 상막조'의 문구를 지운 흔적이 보인다. 특히 우조 산형에는 이 지운 흔적이 보다 잘 드러난다."

51) 김두남은 묵재(默齋) 이귀(李貴), 석루(石樓) 이경전(李慶全),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죽천(竹泉) 이덕형(李德泂), 허균(許筠)의 중형인 하곡(荷谷) 허봉(許篈)과 누이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남편 서당(西堂) 김성립(金誠立),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 어우당(於于堂) 유몽인(柳夢寅) 등과 교유하였다.

진행이 되었지만, 임실현의 재력이 달려서 옛 악보에 있는 모든 음악을 다 수록할 수가 없었다. 『태평유보』에는 옛 악보에 있는 곡 중 7~8곡만을 선택하여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양덕수 악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빠른 곡이 아니라 느린 곡 위주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양금신보』의 거문고 선율은 양덕수 악사가 선택한 옛 악보의 거문고 선율을 바탕으로 완성되었다.

『양금신보』의 첫머리는 금아부(琴雅部)·현금향부(玄琴雅部) 순으로 실려 있는데, 이것은 김두남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아부의 내용은 옛 문헌들에서 전하는 중국의 금(琴)의 기원과 상징에 관한 기록이 집록(輯錄)된 것이다. 아마도 명(明) 대의 『태고유음』(太古遺音)의 군서요어(群書要語)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금향부의 앞부분은 거문고의 유래에 관한 것으로, 『삼국사기』 「악지」의 내용을 축약하였고,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고려 의종 때 정서(鄭敍)의 <정과정> 삼기곡(三機曲)에서 대엽의 만(慢)·중(中)·삭(數)이 나왔다는 내용을 거문고의 유래 뒤에 첨가하였다.

실제로 김두남이 음악 애호가임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김두남은 『양금신보』 서(序)에 유장경(劉長卿)의 <탄금(彈琴)>이란 시를 인용하여 음악적 지식을 과시하였고, 유몽인은 『양금신보』를 전해준 김두남을 상음(賞音, 혹은 知音)으로 교유한 벗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나의 종자기(鍾子期)'라고 고백하였다. 그리고 선조 21년(1588, 戊子) 한양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시위에서 김두남은 명문가의 자제 30여 명과 함께 대표로 <동동[登登曲]>을 불렀다는 점에서 평소 그의 음악적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그였기에 임진왜란 후 거문고 음악 전승의 앞날을 우려하여 양덕수 악사를 권유하여 『태평유보』를 만들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금신보』를 간행할 수 있었다. 악보를 제작한다는 것은 청각적 인상에 의해 기억·재현되던 음악을 일정한 기호를 써서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이상의 음악적 지식과 개인의 노력, 재물, 시간 등이 요구되는 고도의 음악 활동이다. 따라서 거문고보 제작은 예술적 개성의 표

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니아의 취향이 내재된 음악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김두남은 『양금신보』를 간행하여 음악 애호가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악보가 간행된 이듬해 바로 유몽인이 다스리는 이웃 남원을 찾아기 『양금신보』를 한 권 주었고, 이로 인해 유몽인의 거문고 음악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의 손에까지 『양금신보』가 들어가, 거문고에 입문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조선 시대 거문고보 중 『양금신보』를 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거문고보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통해서도 『양금신보』가 대량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양금신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양덕수는 유명인사가 되었으나 발행인 김두남의 이름은 거문고 음악 애호가들에게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임실현감 김두남 서(任實縣監 金斗南 序)'가 기록된 『양금신보』의 마지막 장이 인쇄와 전사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iamsachoi@hanmail.net

【참고문헌】

『琴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서울: 국립국악원, 1989), 제18집.

『琴操』. 『中國古代音樂文獻叢刊』. 北京: 人民音聖出版社, 1990.

『記言』. 『韓國文集叢刊』(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제99집.

『亂中雜錄』.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白軒先生集』. 규장각 소장 : 奎 15560-v.1-18.

『白虎通義』. 『文淵閣四庫全書』(臺北 : 臺灣商務印書館, 1985), 제850집.

『三國史記』. 『한국음악학자료총서』(서울 : 국립국악원, 1989), 제27집.

『石樓遺稿』. 『韓國文集叢刊』(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8), 제73집.

『惺所覆瓿藁』. 『韓國文集叢刊』(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8), 제74집.

『樂學軌範』. 『한국음악학자료총서』(서울 : 국립국악원, 1989), 제26집.

『梁琴新譜』. 규장각 소장 : 가람古貴 780.951 Y17y.

『梁琴新譜』. 장서각 소장 : 귀 C10F 6.

『梁琴新譜·遊藝志』. 『한국음악자료총서』(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9).

『梁琴新譜』. 『한국음악학자료총서』(서울 : 국립국악원, 1989), 제14집.

『梁琴新譜 : 韓國音樂小史』(서울 : 通文館, 1959).

『練藜室記述』(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2).

『於于集』. 『韓國文集叢刊』(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8), 제63집.

『朝鮮王朝實錄』. http://www.minchu.or.kr

『芝峯集』. 『韓國文集叢刊』(서울 : 민족문화추진회, 1988), 제66집.

『太古遺音』. 『琴曲集成』(北京 : 北京中華書局, 1981), 제1책.

『太音大全集』. 『琴曲集成』(北京 : 北京中華書局, 1981), 제1책.

『太平御覽』. 上海 : 涵芬樓, 1929.

『風俗通』. 『(聚傍珍宋)四部備要』(臺北 : 臺灣中華書局, 1981), 제361집.

『湖南邑誌·任實』. 『전라도읍지』(서울 :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6), 제15집.

『混定編錄』. 규장각 소장 : 古 4252.4 24 00.

김문식. "문집의 정본을 만들어야 한다." 고전포럼, 2010년 12월 29일, 33번째 이야기.

성경린. "한국의 악보." 『한국음악논고』(서울: 동화출판공사, 1976).

송방송. 『조선음악인열전』. 서울: 보고사, 2010.

송지원. 『마음은 입을 잊고 입은 소리를 잊고』. 서울 : 태학사, 2009.

신대철. "『양금신보(梁琴新譜)』 재람(再覽)," 『제5회 동아시아 악률학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10년 11월).

원주김씨대동보편찬위원회 편. 『原州金氏大同譜』(서울: 原州金氏大同譜編纂委員會, 1982), 제1집.

이동복. 『한국고악보연구』. 서울: 민속원, 2009.

이혜구. 『신역 악학궤범』. 서울: 국립국악원, 2000.

임미선. "음악학적 측면에서 본 『이재난고』의 사료적 가치." 『頤齋 黃允錫의 학

문과 사상』(서울: 경인문화사, 2009).
전지영. "조선시대 문인의 음악담론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양금신보』를 간행한 파강(巴江) 김두남(金斗南, 1559~1647)에 관한 자료들을 가능한 폭 넓게 수집하여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의 생애와 교유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그가 남긴 『양금신보』를 다시 살펴보면서 거문고보 발행인으로서의 역할과 소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두남은 여러 관직을 거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종2품)에 올랐고, 사후에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된 인물로, 젊은 나이부터 사장(詞場)에 나가 일대의 이름난 이들과 교유하였으며, 성예(聲譽)가 높았다. 임실 현감 시절에는 이웃 남원에 있는 양덕수를 임실로 데려와 『태평유보』(太平遺譜)를 만들도록 권유하였는데, 당시 임실현의 재력이 달려서 옛 악보에 있는 모든 음악을 다 수록할 수가 없었기에 양덕수 악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옛 악보에 있는 곡 중 느린 곡 위주로 7~8곡만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태평유보』를 바탕으로 목판본 『양금신보』가 간행되었다.

『양금신보』의 첫머리는 금아부(琴雅部)·현금향부(玄琴雅部) 순으로 실려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김두남이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음악적 지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양금신보』 서(序)에 유장경(劉長卿)의 <탄금(彈琴)>이란 시를 인용한 점, 유몽인이 김두남과 상음(賞音, 혹은 知音)으로 교유한 사이라고 언급한 점 그리고 선조 21년(1588, 戊子) 한양에서 있었던 대규모의 시위에서 명문가의 자제 30여 명과 함께 대표로 <동동[登登曲]>을 불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그였기에 임진왜란 후 거문고 음악 전승의 앞날을 우려하여 양덕수 악사에게 『태평유보』를 만들도록 권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금신보』를 간행할 수 있었다.

김두남은 『양금신보』를 목판본으로 제작하여 여러 음악 애호가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양금신보』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양덕수는 유명인사가 되었으나 발행인 김두남의 이름은 거문고 음악 애호가들에게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임실현감 김두남 서(任實縣監 金斗南 序)'가 기록된 『양금신보』의 마지막 장이 인쇄와 전사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 주요 검색어 : 거문고, 현금(玄琴), 금보(琴譜), 김두남(金斗南), 양금신보(梁琴新譜), 동동(登登)

【Abstract】

Kim Tu-nam and *Yanggŭm sinbo*

Choi Sun-A [Ch'oe Sŏn-a]

In this paper, the studies on Kim Tu-nam 金斗南 (his pen name: P'a-gang 巴江), the publisher of *Yanggŭm sinbo* 『梁琴新譜』 (Yang's New *Kŏmun'go* Manuscript) is presented, based on his biography, relationship with contemporaries, and his role as the publisher of *Yanggŭm sinbo*, the details of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so far.

As a civil official, Kim Tu-Nam was promoted up to *Tongchi chungch'u pusa* 同知中樞府事 (2nd rank in civil officials) after taking up several government posts, and posthumously conferred the minister of finance department. He enjoyed being associating with contemporary celebrities in the poetry contests and had profound knowledge of music. As a governor of Imsil 任實 County, he invited Yang Tŏk-su 梁德壽, a court musician from the neighboring Namwŏn 南原 for the compilation

of *T'aep'yŏng yubo* 『太平遺譜』 in which only 7~8 slow scores were included, being selectively excerpted among old scores following the opinion of Yang Tŏk-su. Such a limited selection was due to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Imsil Count, which finally became the *kŏmun'go* 거문고 i.e. *hyŏn'gŭm* 玄琴 melodies of *Yanggŭm sinbo*.

The introduction of *Yanggŭm sinbo* contains *Kŭmabu* 琴雅部 and *Hyŏn'gŭm hyangbu* 玄琴鄕部 which seems to be the composition of Kim Tu-nam. Kim Tu-nam's profound knowledge of music is partly seen in the preface of *Yanggŭm sinbo*, where *t'an'gŭm* 彈琴, a poet of Yu Chang-gyŏng 劉長卿 (*Liu Chang-qing* in Chinese) is quoted, and confirmed by the facts that Yu Mong-in 柳夢寅 commented on his intimidate relation with Kim Tu-nam and also that Kim Tu-nam representatively recited *Tŭngdŭng* piece 登登曲 together with 30 youths from distinguished families in the national poetry contest held in 1588 (the 21st year of King Sŏnjo 宣祖). Therefore, it seems he was motivated and qualified enough to publish *Yanggŭm sinbo* in cooperation with Yang Tŏk-su, caring about the tradition of musical legacy after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Kim Tu-nam published *Yanggŭm sinbo* based on wood block printing for distribution among contemporary lovers of music expecting close companionship with them, however, Yang Tŏk-su became famous as the popularization of *Yanggŭm sinbo* while the name of Kim Tu-nam was almost forgotten and never mentioned publicly. The reason seems to be the accidental omission of the final page of *Yanggŭm sinbo* in the process of printing or transcribing, where the publisher's name is written.

※ Key words : *kŏmun'go, hyŏn'gŭm* 玄琴, *kŭmbo* 琴譜, Kim Tu-nam(金斗南), *Yanggŭm sinbo* 梁琴新譜, *Tongtong*(登登)

투고일자	심사일자	수정 및 완성일자
2011년 10월 15일	2011년 10월 26일 - 11월 7일	2011년 12월 13일